

깊은 씬과 시퀀스를 가진 집 House with Deep Scene and Sequence

대담자 / 류전희(송실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설계자 / 박연심(장원건축)
Ryu Jeon-Hee & Park Yeon-Shim
일 시 / 1997. 11. 11. 오전 11:00
장 소 / 분당 단독주택



대담광경(왼쪽:박연심 오른쪽:류전희)

류전희 _____ 우선 분당에 사는 사람으로서 분당 주택 전람회 단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장님이 설계한 주택에 와보니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게 느껴집니다. 주택전람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질문해 보죠. 우리 건축계의 큰 건축적 실험이 미완으로 돌려져 기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박연심 _____ 이번 인터뷰의 발단은 류교수님이 분당에서 살면서 체험한 것을 얘기하다가 분당에 새로 생긴 여러 타입의 주거형태와 집장사들의 집을 답사하면서였죠? 분당같은 도시가 세계도시사에 없는 일이고 또 21명의 건축가가 - 저의 경우는 지순선생님의 양보로 영광스럽게 참가하게 된것이지만요 - 대거 참가한 주택전람회단지가 생긴 것도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 지금까지 지어진 주택들도 주변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니깐 입주를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행하게도 분당이 기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고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분양은 일단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조차 상업성의 논리에 빠지게 된 점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전희 _____ 그렇게 본다면 소장님의 작품들은 실제로 지어졌으니 행운아이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러했던 만큼 이 정도의 큰 주택을 설계하면서 특정 건축주가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라 보여집니다. 그런 점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단계에서 건축주가 결정되었는지요?

박연심 _____ 일단 시공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건축주는 건설회사인 셈이었는데요. 계획단계에서는 이 지역에서 200여평 땅에 100여평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50대의 가장과 2,3명이 출가했거나 동거하고 있는 자녀를 가진 가족구성말입니다. 실제로 다른 주택을 설계할 때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들은 특별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지 않죠. 최근 8가구의 전원주택단지를 설계하는데 거의 가족구성이 비슷한 30대중반 가정의 주택설계가 나중에는 서로 서로 비슷해지더라고요. 거기에 내 의도를 반영하기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류전희 _____ 그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마치 주택전람회의 난관 많았던 것을 반영하듯이 시공의 완성도가 작품을 너무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건축가로서 어땠는지요? 또 평소에 시공이 진행되는 현장상황까지 많이 관여하시는 편입니까?

박연심 _____ 이 우환의 미술론 중에 '만남의 미학'이란 것 있죠? 이런 경우도 그 정도수준의 시공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않는 게 상책이죠. 이 현장을 맡게 된 소장은 인테리어공사를 주로 하던 분이라 건축물에서의 조금 관습적이지 않는 디테일에는 무척 약하셨습니다. 그런 정도수준의 시공회사와 소장님 그리고 나와의 만남은 일종의 운명론 같은 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 집에 살게 되는 건축주와의 만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유전자 과학에서의 발견도 모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중독자는 그 유전자에 이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든지 똥똥한 사람도

그 유전자에 계획되고 있다는 등등, 그렇다고 노력을 안하면 안 되겠죠? 일단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반성도 있겠습니다.

류전희 _____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타 건축가의 작품들이 유사성을 보이는데 반해 소장님의 작품들은 작품의 분위기, 마감, 공간 등이 상당히 다른 듯 합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박연심 _____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없었다고 할까요. 각각의 대지를 풀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마감은 두 프로젝트 모두 노출콘크리트였다가 주택부분의 노출콘크리트를 보시다시피 상태가 좋지 않아 연립주택의 재료를 변경하여 더욱 더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스케일의 경우도 연립주택은 40여평 내외의 규모이고 주택은 100평 가까이 되는 것이므로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아직도 그 유사성이라는 점은 꼭 필요한 것인가 어떤가가 솔직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류전희 _____ 두 작품들에서 사용된 스케일 등을 보면 공간분위기 등이 상반되는 듯 한데, 연립주택에서는 분위기가 여성적이에요.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 재미있게 형태나 외부공간이 전개되는 듯 한데 단독주택은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시원시원한 느낌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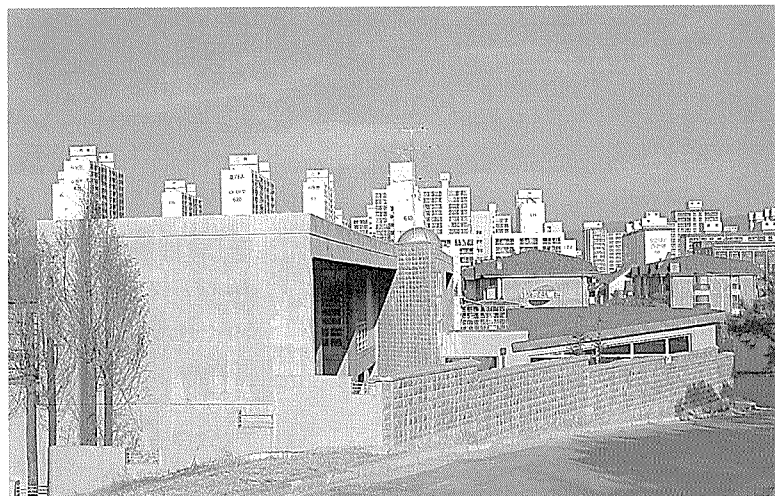
박연심 _____ 스케일 상에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연립주택의 경우는 이 단지에서는 제일 면적이 작고 그래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 류의 주거형이 꼭 평수가 커야만 되는지가 공감감이 잘 안 되요. 주택의 경우는 100평정도의 규모이므로 스케일 상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원시원하다는 것은 큰 스펠과 기둥의 높이 등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은 그 스케일 감이 훨씬 호감이 가는데요. 이런 것을 이 주택에서는 남성적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류전희 _____ 아마 정원부분에 단독주택으로는 상당히 긴 14m 장스팬의 캐노피와 8개의 기둥이 연출하는 분위기가 독특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캐노피 중간중

간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 재미있는데 이 공간을 특별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박연심 _____ 주거공간에 중간영역이 있어서 내부도 외부도 아닌 공간이 좀더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생활을 유도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략이야말로 근본적인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러한 중간영역은 우리가 흔히 건물을 기능으로 꽉 채우려 하는 기존관념을 깨고 건축물이 대기 속에서 보이도록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이로 바람이 통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등, 공간의 상호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건축물이 지어지는 동안 구조물이 무척 보기 좋다가 그것이 창이나 벽으로 다 채워진 후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원인이 자연속에서의 상호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기존의 설계방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곤 했죠. 우리 나라의 전통건축이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정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연 속에 일체가 되어 있지요? 이 주택에서는 그런 공간의 보이드가 수평으로 뿐만 아니라 또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류전희 _____ 예전에 쓴 건축방법론의 접근태도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면, 최근 발표하시는 일련의 글들에서 보면 건축이외의 예술분야 - 소설, 영화, 회화, 사진 등 타 장르 - 를 연결시키는 등 관심의 영역이 넓고 굉장히 치밀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박연심 _____ 체계접근으로서의 건축형태론은 85년이후 4-5년간의 작업을 정리하여 90년에 건축사지에 발표한 것이고 최근 월간 건축세계를 통하여 연재한 '공간 속으로의 탐험(Scene & Sequence)' 시리즈는 그 이후의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 둘은 또 다른 건축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탐은 꼬르비지에나 미스처럼 일생을 한 건축관으로 시종일관하였던 것과는 너무 비교가 되지요? 정보화시대에서는 시대적으로 변화가 빠르는데 거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타분야에 대한 관심은 일종의 호기심으로 볼 수 있는데 정리하다가 보니 그런 관심이 '씬 그리고 씨퀀스' 라는 하나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류전희 _____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집의 구성이 집의 중심을 차지하는 긴 복도와 그 복도로 연결되는 여러 유형의 공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의 지적 작업을 이번 작품과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설명될까요?

박연심 _____ 이 주택의 경우도 그 연장선 위에서 보행자가 느끼는 공간들의 열림과 닫힘, 중첩, 그리고 깊은 시각들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한 거지요. 거기에서 사용되어진 건축요소는 연못, 중정, 긴 복도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전희 _____ 역시 연못도 그러한 연출에 한 몫을 하는 것이군요? 연못의 위치가 집의 내부가 아닌 현관측면에 배치된 것이 흥미 있네요. 성격상 거실, 복도 등을 걸러주는 장치로써 의도한 것인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박연심 _____ 현관으로 접근하면서 거실사이에 있는 연못은 이 집에서는 일종의 원심적인 작용을 합니다. 가령 현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왼편의 연못을 느끼고 들어가서 복도를 걸을 때 계속해서 왼편의 연못을 느낍니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그 연못은 왼편에서 빛에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집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듯이 거실공간으로 대별되는 푸른색과 그 외의 갈색부분의 구조가 서로 구심력을 갖게 되는 것과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연못에는 떠다니는 오브제가 놓여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낙엽같은 것이라도.

류전희 _____ 고저차를 이용한 등근 외벽에 둘러싸인 공간이 거실이란 점이 특이합니다. 이 거실은 시야가 안 마당으로 열려 내부지향적인 성격이 많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거실공간에서 외부의 차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많다고 볼 때 반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면들이 빗겨가면서 생기는 틈새 등으로 조금씩만 외부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박연심 _____ 이 거실의 외부를 차단하는 벽은 우리 나라 전통공간에서 볼 수 있는 담갈은 것으로 그 벽은 같은 높이로 등산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담과 가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비오는 날 한옥의 한 귀퉁이 낙숫물이 줄줄 흐르는 담벼락에 비를 맞고 서있는 나그네의 이미지 같은 것... 분명히 그런 상상으로 설계를 했다고 생각되요.

류전희 _____ 최근 쓴 글들에서 보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독특하게 있으신 듯 한데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박연심 _____ 콘텍스트라는 말은 이제는 한 물건 느낌이 드는데 보통 계획을 진행하면서 먼저 주변상황을 봅니다. 거기에는 대지의 고저차나 형태는 어떤가, 도로상황은 어떤가, 주거로서 장애가 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요소가 있는가, 소음 정도는 어떤가 등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방금 전에 질문한 내가 나타내고 싶은 공간의 분위기를 믹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독특한 수법인 다이어그램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생성된 다이어그램은 이후 시공단계까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어떤 면으로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란 점을 요즘은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전공하면서 인공지능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애가 보는 책 중에 'Pattern for Problem Solving' 이란 책이 있더라구요. 그 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입력하면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해주는 시각적 패턴을 생성하여 보는 사람이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한 장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일리노이 공대의 컴퓨터연구실에서는 그런 용역을 받는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시티의 공해문제를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시의 지형과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 그리고 기상 조건 등이 복합된 삼차원의 다이어그램을 그려내서 그 도시의 공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향제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반성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방법이 인공지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좀 더 시적poetic이고 체합tectonic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류전희 _____ 기성 건축가들에서는 보기 드물게 직접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를 찾아내시거나 지적 탐구를 끊임없이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로 어떻게 얻는지 말해 주시죠?

박연심 _____ 정보화사회에서 나의 자리 - 비록 계단 밑방이지만 - 는 변방에 있지 않고 세계의 중심도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도서관은 아직도 내겐 중요합니다. 텍스트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건축적 역사성이나 정통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류전희 _____ 특별히 좋아하는 건축가가 있으십니까?

박연심 _____ 미국의 건축가 스티븐 홀을 들고 싶어요. 그의 작품들은 사고가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것을 보여 주어서 좋아합니다. 건축실무에서 차용해 오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도 좋아합니다. 미국 소설가 스티븐 멀빌의 '백경'에서 건축의 아이디어를 따오기도 하고 일본의 오행시 문학인 단가에서도 모티브를 얻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Stretto House에서 처럼 바르톡의 음악 형식에서 건축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의 문화적 행위는 모두 건축에 연결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 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류전희 _____ 이야기를 마무리지으면서 여성건축가가 드문 현실에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보람만큼이나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보이지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박연심 _____ 이화여대 건축과에 강연을 하러 가보니 모두 여성이던데... <웃음>... 그들 앞에 서니까 무엇인가 여성건축가로서 책임감이랄지, 새로운 다짐같은 것을 갖게 되던데요. 지금까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성건축가로서 사회적으로 환경문제,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사업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여성건축

가협회나 경실련 도시문제연구소에서 하고 보육문제는 여성보육회에서 연구나 실무를 통해 실천하고 있어요. 주변에 여성건축가 동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들의 건축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이 가진 애환이랄까 그런 이야기나 하소연 같은 것을 많이 듣지요. 그럴 때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 처럼 동지애가 느껴지곤 해요. 요즘 마스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나같이 여성을 사회로 끌어내려 하는 게 사회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남성들의 인식이나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후여건은 그러기에는 문제가 많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건축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류전희 _____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